

사회

200만원이면 장애진단

광주경찰, 브로커와 짜고 무더기 발급 병원 적발

전남 지자체 보건소 직원도 포함 수사 확대

경찰이 브로커와 의사가 짜고 수백 명의 비장애인에게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사실을 적발, 수사에 나섰다. 특히 경찰은 브로커 가운데 전남 모 자치단체 보건소 직원도 포함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3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서울 모 신경외과에 대한 암수수색을 실시해 확보한 진료기록부 등 각종 서류를 통해 허위 장애진단 발급이 대규모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 2년간 1400여 명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이

중 대부분은 4~5명의 알선 브로커를 통해 건강 200만~300만원을 주고 허위 장애진단서를 받은 '가짜' 장애인으로 알려졌다. 장애 진단도 순가락 판절 이상 등 눈에 띄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장애로 3~6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히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20~30대의 경우 병역 기피 또는 취업 목적으로 가짜 장애인 등록증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또 브로커 중 전남 모 자치단체 보건소 직원도 끼어있는 정황을 파악하는 한편 이 병원 외 다른 1~2곳의 병원도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장애진단서를 주소지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장애인 등록을 하면 LPG 차량 구입, 통신요금, 대중교통 이용료, 차량 등록세와 취득세, 고속도로



실종자 찾기 저수지 수색

정신질환이 있는 30대 여성의 집을 나간지 닷새째 연락이 두절된 가운데 23일 광주지방경찰청 특공대가 광주시 남구 석정동 한 저수지를 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저수지에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실종자 가족의 진술에 따라 저수지를 뒤졌으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여성은 23일 오전 7시 30분께 저수지에서 물에 빠져 물살을 놀렸다가 물에 잠겼다. 경찰은 그녀가 물에 빠져 물살을 놀렸다가 물에 잠겼다는 진술을 듣고 저수지 수색에 착수했다.

경찰은 저수지에서 물에 잠겼던 여성의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

이 여성은 23일 오전 7시 30분께 저수지에서 물에 빠져 물살을 놀렸다가 물에 잠겼다. 경찰은 그녀가 물에 빠져 물살을 놀렸다가 물에 잠겼다는 진술을 듣고 저수지 수색에 착수했다.

경찰은 저수지에서 물에 잠겼던 여성의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

</div